‘혹시나’ 민주당 공천개혁 ‘역시나’

시민배심원제 30% 도입 공언 불구 광역·기초단체 6% 그쳐

‘현직 단체장 평가’ 별다른 위력 없고 ‘5+4 연대’도 물 건너가

6월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공천 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당장 공천 개혁의 상징이었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광역단체장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 경선 1곳에 머무르게 됐으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도 광주 남구와 여수 등 전국적으로 14곳 정도에서 도입되는데 머무를 전망이다.

이는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250곳)의 6% 수준으로, ‘전략공천의 상한선인 30% 내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의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여기에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물론 여수시장 후보 경선 등 기초단체장 5곳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50%만 적용하게 되면서 제도 자체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회심의 카드로 내세운 현직 평가도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1곳과 전남 4곳의 현직 단체장이 상대 평가 결과, C 등급을 받았으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C 등급을 받은 단체장에 대해 전체 심사 점수의 10%를 감점하는 기준 자체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C 등급을 받은 전남지역 모 기초단체장은 “현직 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종 경선에 진출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므로 현직 평가는 당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공천은 당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혁 공천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유권자의 인지도가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검증 시스템과 동원 경선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됐지만 당원 경선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반 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위한 ‘5+4 연대’도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총체적인 부실로 흐르지 않느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와 현직 심사 등을 개혁 공천 방안으로 들고 나왔지만 부실한 준비 등으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주도한 386 의원들은 그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의 손으로 봄 되찾아야”

광주·전남서 ‘뉴민주당 정책 콘서트’ 시동

민주당은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뉴민주당 정책 콘서트 ‘봄을 들고 왔습니다’를 개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7개 분야의 54개 브랜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예비후보자, 당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김효석 비전위원장은 이날 ▲초·중교육-학교가 즐거우면 공부도 즐거워진다 ▲대학교육-빚대생(빚진 대학생)을 아십니까 ▲취업-일자리 백화점 개소 ▲중소기업-힘내라 중소기업 ▲서민경제-골목경제를 보호하라 ▲비정규직-아닐 非인가, 슬플 悲인가 ▲사회복지-현미경복지 등 10대 생활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연구원장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겨울이다. 이제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봄을 맞아야 한다”며 “30년 전 광주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봄을 이뤄냈듯이, 민주당의 손으로 봄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뉴민주당 플랜에 이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담기 위해 수많은 외부 전문가는 물론, 생활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정책콘서트에 이어 31일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콘서트에는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예비후보, 주승용·이용섭·강운태 국회의원, 정동채 전 국회의원 등 광주시장·전남지사 출마예상자를 포함, 2천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효석 민주당 비전위원장과 광주시장 예비후보자들이 2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 민주당 전국순회 콘서트’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순천시, 전남 정치 1번지로

동부권에 전남 유권자 45%…도지사·교육감후보 선거캠프 집중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가 ‘전남 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지사와 전남도교육감 선거캠프가 순천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중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선거 사무실이 순천에 들어서 있고,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김대식 예비후보도 순천에 둥지를 틀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고, 크고 작은 정치행사도 잦다.

실제로 지난 27일에는 한나라당 의원 26명이 김대식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해 지역정가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전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6명 중 장만채·신태학·서기남·김장환·윤기선 등 5명의 선거캠프가 순천에 있다. 이들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신도심인 연향동에 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순천에 선거캠프를 차리는 이유는 순천을 포함한 광양·여수·고흥·구례·보성 등 동부권 유권자가 전남 전체 유권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이 동부권의 중심이어서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다 여론형성이나 전파력이 큰 것도 강점이다.

모 도지사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위치상으로는 전남의 중심이 화순군이지만, 인구나 경제활동의 중심은 순천”이라며 “특히 순천과 광양, 여수 등 동부권에는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다 전남 중부와 서부를 잇는 ‘사통팔달’ 지역이어서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 공무원은 “순천에 도지사와 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선거 열기를 체감할 수 있다”며 “순천이 명실상부한 전남의 정치 1번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박준영 “공정선거 치르겠다”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황용연 전남도 선관위 상임위원을 만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전남에서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2015 ‘에코 엑스포’ 개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전남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자원을 살리는 ‘에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2015년엔 ‘월드 에코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에코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생태 인프라를 활용해 오는 2015년에는 ‘에코 월드 엑스포’개최, 전남의 친환경 선진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운태 “경선, 공정성 답보해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인 강운태 의원은 29일 “당원 전수 여론조사를 위한 여론조사 기관 선정은 매출액 기준 상위 1~20위 업체로 해야 하며, 후보대리인이 추첨해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여론조사 전 과정을 녹음해 각 후보 측에 제공해야 하고, 전문 배심원단을 선정하기에 앞서 정치협약을 체결한 단체명과 참여 회원수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아동센터 지원 확대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지역아동센터가 노후한 시설과 불충분한 지원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조금과 석식비, 주방시설 개·보수비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상근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완 “광주은행을 시민 품으로”

이병완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9일 “현재 우리금융 계열사인 광주은행을 광주시민 주주은행으로 인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도민 등 10만 시민 주주단 구성과 지역경제인 등을 포함한 ‘광주은행 되찾기 시민추진본부’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언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29일 오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광주시 서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30일부터 서구 관내를 돌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임홍채 ‘경선 반발’ 민주당 탈당

임홍채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29일 민주당 경선방식에 반발해 탈당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공정하지 않은 민주당 경선방식에 대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해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장 조운식씨

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9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변호사인 조운식 위원을 제3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광주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후보자 간의 정책대결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위원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